

전주시,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추진

전체 채용인원의 35% 법제화 위해 적극 나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북지역 청년들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시장은 7일 전북지역 4년제 대학교 총학생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과 청년취업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 시장은 이어 8일에는 전북지역 대학교 부총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대학교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한 추진동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 시장은 "지난 6월 1일 열린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채용설명회에 3000명이 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모여든 것을 보고 마음이 착잡했다"며 "지역청년들의 희망을 살리는 길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전주시 청년정책제의 과제로 삼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 시장은 '청년 고용사회'의 종말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현재 지방대학교 출신으로 살아야 하는 지역 대학생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공연예술연습공간 개관식

전주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 공연예술인과 관련단체의 공연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의 공식 개관식을 7일 전주시 덕진구 구동산동주민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북 14.0% 등 전국 평균 13.3%에 머물러 있다.

국내 혁신도시 중 지난해 신규채용 규모가 가장 컸던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총 2013명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는 전체의 13.9% 수준인 280명에 그쳤다.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7명에서 179명으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35% 채용이 의무화될 경우에는 지역대학들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적극 나서는 등 전문화된 지역인재 육성이 가능해져 혁신도시가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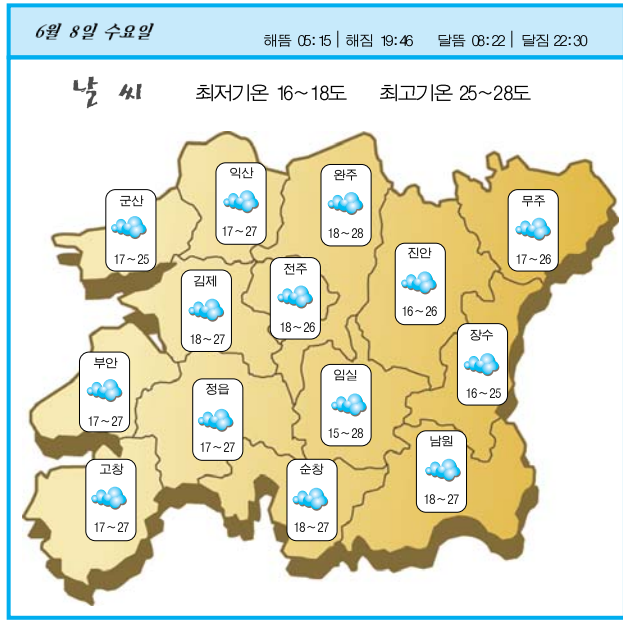
이와 관련 시는 올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법제화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여야 3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법제화 필요성을 알리고 정식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의무채용 35% 법제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또 오는 14일 전주에서 열리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을 위한 국내 혁신도시 지자체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입법발의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채용은 대기업 3.7% 유지 효과가 있고, 청년들의 인구유출도 막을 수 있는 일석대조의 정책"이라며 "정부에 건의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한 형식적인 싸움이 아니라 전주시와 지역정차권, 지역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손잡고 반드시 쟁취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김영재기자



전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이한이 양 아시아 소아치과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이한이(사진) 대학원생(박사과정)이 치아 이형성 및 전신 이상을 동반하는 질병인 '가부키 증후군' 환자의 치과적 관리에 대한 우수 연구로 국제 학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씨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 소아치과학회 치과적 관리(Dental Management of Regional Odontodysplasia)'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우수논문 발표 상인 'Shofu award'를 수상했다. 가부키 증후군은 안면과 두개골, 손가락 등의 골격계 및 치아의 이상 동반하는 질병으로, 다기관계의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며, 진단뿐 아니라 특별한 치료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 논문은 통해 국소적 치아 이형성증을 가지는 가부키 증후군 환자의 치과적 관리를 위해서 소아과 및 관련 진료과의 세심한 협진과정이 필요하고, 진단이 내려진 환자들에게는 잔존 치아의 보존과 저작 기능 회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밝혀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씨는 "다기관계 증후군을 가진 환자를 관리할 때에는 단순한 치아의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기저질환 및 전신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를 가진 어린이 환자의 치과적 특징과 관리에 대해 더 깊이 연구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주시내버스 403대 노후화 통신단말기 신형 LTE로 교체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작업으로 운행정보 일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교통정보센터에 24시간 민원대응반 운영 주·야간 불편민원 처리 예정

전주시가 전주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버스의 노후화된 통신단말기를 신형 LTE방식의 단말기로 교체한다.

전주시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을 오가는 버스 운행정보서비스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버스정보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설치된 통신단말기를 통해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승강장에 설치된 버스도착안내시스템과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버스운행 및 도착정보를 표

출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전주·완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버스 운행정보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해 전주시 전체 시내버스 403대의 노후화된 통신단말기를 신형 LTE방식의 단말기로 전면 교체하고, 교통정보센터의 서버를 교체해 버스 도착정보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내버스 내 통신단말기 교체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교체는 13일부터 23일까지 200대

를 대상으로, 26일부터 7월 2일까지는 2차분 208대가 교체된다.

교체 기간 중 통신단말기가 교체된 시내버스의 운행정보가 일부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시는 시내버스 통신단말기 교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주시청 및 전주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승강장 버스도착안내시스템, 가변전광판, SNS, 버스정보 어플 등을 활용해 버스정보 중단계획을 사전에 홍보하고, 전주시교통정보센터에

24시간 민원대응반을 운영해 주·야간

버스이용 불편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철수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장비 교체작업으로 버스 운행정보가 중단돼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작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순차적으로 교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버스 운행정보 제공으로 버스이용이 한층 편리해 지는 만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교체에 따른 시내버스 불편민원은 전주시 교통정보센터(063-253-5360~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전북교육청, 오늘 순직교육자 추모제 거행

전북도교육청은 8일 전북교육문화관에서 순직교육자 추모제를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순직 교육자 추모제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양용모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청을 비롯해 순직교원 유가족 등 200명 가량이 참여해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교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예정이다. 추모제는 김승환 교육감 추념사

와 양용모 위원장과 대한적십자 전북회장의 추도사,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30화제를 맞은 순직교육자 추모제는 교원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스승 공경·제자사랑의 정신을 함양하고자 도교육청 주관으로 매년 거행돼 오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스스로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재해예방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산재예방요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01 산재예방요율제란?**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
- 02 재해예방활동**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교육 인정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 03 적용대상**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
* 일괄적용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일 경우 참여 가능
(일괄적용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는 하나이고 사업개시번호가 다수인 사업장)
- 04 적용방법**

구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교육 인정
인하율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유효기간	3년간	1년간
방법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이 속한 다음연도부터 인정기간 만큼 일괄계산하여 산재보험료를 인하 (중복시 인하율이 높은 것 적용)	
- 05 신청방법**
위험성평가 인정인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사업주교육 인정인 경우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kosha.or.kr)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06 업무처리 절차**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재해예방활동(사업주교육) 신청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공단) 사업주교육 이수(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근로복지공단)
---------------------------------	----------------------------------	-----------------------	------------------------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인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